



#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 레 7:7-10

최 신 성 목사  
(계산중앙교회 담임, 교역자은급재단 이사)

일 년에 많은 특별한 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4번의 절기 예배도 있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삼일절 기념 예배, 창립 기념 예배 등 여러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기에 날짜까지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하는데,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은급주일 예배입니다. 은급주일 예배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은급주일 예배는 우리 교단의 교역자 은급제도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귀하고 특별한 예배입니다.

교역자 은급제도는 평생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 누추한 생활을 하는 목사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감리교회가 힘을 모아 만든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은급제도는 1914년 6월 제7회 미감리교회 연회가 고 전덕기 목사님의 유가족을 돕기 위해 그리고 은퇴한 후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권신일 목사님을 도우려고 연회에서 매월 15원씩 생활비를 보조한 것을 시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역사가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도 많은 감리교회가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고 귀한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영혼구원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 몸을 다해 순종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설교, 교육, 전도, 돌봄 등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아주 특별하고 힘들고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을 소명과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맘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절대 순종으로 시작하여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삶이 바로 목사님들의 삶입니다.

현재 한국 감리교회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2022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6,6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12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감리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목사님들의 기도와 심방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

니다. 이 엄청난 일은 한국에서 1885년에 정동교회가 세워지며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139년 전 일입니다. 그때 한국에는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한국에,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든 멋진 교회들과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나 기업이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모든 개인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수에 모든 것을 바친 목사님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목사가 된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의 길로 들어선 것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평상시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자라 빚을 얻어서 헌금하며 교회를 하나, 하나 세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매일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지만, 목사님들은 새벽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교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출퇴근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목사님들의 이러한 고귀한 희생으로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늘 우리는 그 교회에서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작은 일만 해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기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는 지금 엄청난 희생을 하고 연로해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많은 은퇴한 목사님이 노년을 힘들게 보내고 계십니다. 현재 많은 원로목사님이 삶의 거처뿐 아니라, 각종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 하루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의 종들의 삶을 철저히 성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도 모두 제사장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것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스

---

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이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더불어 소외되는 제사장들이 없도록 레위기 7장 10절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배제도에 이 부분을 넣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지금 두 그룹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지금은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은퇴목회자들과, 오늘도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젊은 목회자들입니다.

최근에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젊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좀 안 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멋진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누구도 가기를 꺼리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젊음을 바쳐가며 교회를 지키고 노인 성도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뿐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 젊은 목사님은 동남아 노동자 20여 명과 함께 숙식을 함께 하며 그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고 모든 생활 뒷받침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또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해외에 나가 불안한 치안 속에서 한 영혼이라고 구원하기 위해 매일 매일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누가 미래가 없다는 곳에 자신의 삶을 던지겠습니까? 한 마디로 이 목사님들은 자신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하루, 하루 영혼 구원과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들을 보며 다시 레위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을 돕는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돕는 것이 아니라 잘 섬겨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은급주일을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풍성한 은급 제도를 통해 연로하신 목사님들에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생을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일은 목회자를 위한 일이라기보다 성도들을 위한 일입니다. 목회자가 오직 목회에 집중할 수 있을 때 한국 교회가 더 귀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목회자가 평안한 마음으로 목회할 때 성도를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오직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을 때 다음세대를 살리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은급 제도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한 일입니다.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신 은퇴 목사님들에 기쁨을 주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다음세대를 구원하기 위한 귀한 일에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16층 (세종로, 광화문빌딩)  
<http://kmcpension.or.kr>  
e-mail : kmcpension@nate.com  
TEL: (02)399-4326~9 FAX: (02)399-4330

이사장 이 철



**The Korean Methodist Church Pension Foundation**

16Fl. Methodist Center, 149, Sejong-daero, Jongno-gu,  
SEOUL 03186 Rep. of KOREA  
<http://kmcpension.or.kr>  
e-mail : kmcpension@nate.com  
TEL: 82-2-399-4326~9 FAX: 82-2-399-4330

Chair Person **Lee, Chul**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감은재 제2024-001호

2024년 1월 2일

수 신 : 담임교역자 제위

참 조 : 재무부장

제 목 : 2024년 은급주일 성수 협조 요청

1.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24년 제70회 은급주일을 맞이합니다. 1984년 처음 은급비를 지급한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항상 교역자 곁에서 힘이 되는 은급재단이 되겠습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교회가 함께 2월 4일 은급주일을 성수하여 원로목사님과 유가족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앞으로도 은급재단이 원로목사님과 유족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은급주일 성수와 관련된 자료(설교문)는 은급재단 홈페이지([kmcpension.or.kr](http://kmcpension.or.kr))로 접속하셔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입금계좌 : 우리은행 436-04-101575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지방과 교회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이사장 이 철

